

## 김호규 위원장 당선자 금속노조 10기 이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일 새벽 당선인 공고... 기호 3번 김호규-신승민-황우찬 조 당선  
여성 김현미, 일반 이승열, 양기창, 송명주, 정주교, 엄강민 부위원장 당선



김호규 위원장 당선자가 전국금속노동조합 10기를 이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 새벽 01시32분 10기 임원선거 당선인 결정 공고를 발표했다. 기호 3번 김호규-신승민-황우찬(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조가 투표자 10만9천624명 가운데 5만5천614표, 득표율 50.7%를 기록해 당선

을 확정했다. 기호 1번 남택규-강오수-김성열 조는 5만683표, 46.2%를 얻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결선투표를 치른 기호 2번 양기창 후보는 77.37%, 기호 3번 송명주 후보는 73.73%, 기호 4번 정주교 후보는 73.47%, 기호 5번 엄강민 후보는 73.22%의 찬성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기호 1번 이

승열 후보는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된 상태다.

여성명부 부위원장은 기호 1번 김현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당선됐다.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 2차 투표에 전체 조합원 16만8천487명 가운데 10만9천62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65.06%였다.

### 알립니다

<금속노조통신> 9-166호는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 관계로 9월 29일(금)에 발행합니다.

# “문재인 정부, 사회 대화 앞서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민주노총, 5대 대정부 요구 선포...비정규직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등 촉구

민주노총이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노조 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노사정위) 복귀 등 사회 대화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대화의 조건”이라며 노조 할 권리를 위한 5대 요구를 선포하고, 문재인 정부에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관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5대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 등 특



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과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와 특례업종 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5대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다. 특히 전교조, 전공노 법외노조화 철회는 국제노동기구가 26년이나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5대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이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4백만, 특수고용 노동자가 2백5십만명”이라며 “노조법 2조 등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법 제도를 바꿔야 간접고용,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5대 요구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확인한 뒤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응계획을 발표한다.

## 발레오만도지회, 7년 만에 현장 복귀

27일, 해고자 열세 명 출근...지회, “소수노조 벗어나도록 현장 조직화할 계획”

2010년 직장폐쇄 당시 노조파괴에 맞서다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한규업,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7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발레오만도(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9월 20일 해고자 열세 명에게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처분 판정에 따라 징계처분

을 취소한다’라는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보냈다. 해고자들은 9월 22일 징계처분 취소 통보서와 복직 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해고자 열세 명은 9월 27일 오전 8시까지 상용공장 교육장으로 출근한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고자 열다섯 명 중 두 명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번 복직에서 제외됐다. 부서 배치 등 복직 관련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복직하는 신시연 지회 조합원은 “현장으로 돌아가니 좋으면서 어깨가 무겁다”라며 “소수노조에서 벗어나도록 현장을 조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